

‘요아킴 트리에 감독’ 작품 세계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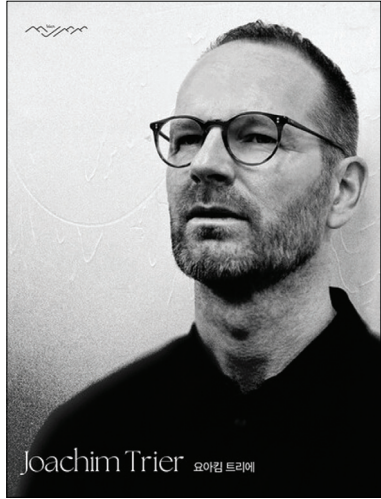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동시대 시네아스트’ 선정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열리는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동시대 시네아스트’의 주인공으로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선정됐다. 그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총 7편을 상영하며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날 31일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동시대 시네아스트’에 요아킴 트리에 감독을 선정했다.

트리에 감독은 장편 데뷔작 ‘리프라이즈’ (2006)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이후 ‘오슬로, 8월 31일’ (2011)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2021)로 이어지는 오슬로 3부작을 통해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개인의 고립과 관계의 불안 그리고 흔들리는 정체성을 섬세하게 포착해 왔다.

그는 인물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관객을 이끄는 연출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모순을 집요하게 탐구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센티멘탈 밸류’ (2025)에서 더욱 확장해 복합적인 서사로 구현했다. 해당 작품은 상심 속에서도 유머와 리듬 그리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삶의



요아킴 트리에 감독
생동감을 포착하며 인간 삶의 이중성을 깊이

있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동시대 시네아스트에서는 ‘피에타’, ‘스틸’, ‘프록터’ 등 초기 단편 3편을 비롯해 오슬로 3부작으로 불리는 ‘리프라이즈’, ‘오슬로, 8월 31일’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그리고 최신작 ‘센티멘탈 밸류’를 상영한다.

이와 함께 감독의 영화적 방법론과 세계관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비평서가 영화제 기간에 맞춰 발간되며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토크시네마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무주산골영화제 동시대 시네아스트는 매년 현대 영화 미학의 최전선에서 인상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감독을 선정해 주요 작품 상영과 비평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세계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월드시네마의 흐름을 조명하는 영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영화제 관계자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해 가장 보편적인 감정에 도달하는 동시대 영화의 중요한 감독”이라며 “그의 영화는 오늘날에도 영화가 인간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관계를 가장 섬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예술임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무주=손승기 기자



익산 입점리고분전시관, ‘나만의 반려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익산 입점리고분전시관이 꽃 피는 4월을 맞아 ‘2026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나만의 반려 화분 만들기’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행사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입점리 고분과 아름다운 응포의 벚꽃 산책로를 연계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자신만의 반려 화분을 제작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원예 힐링 체험이 진행된다.

이어 전시관과 고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백제 시대의 무덤 축조 과정과 양식을 배우는 현장 학습형 투어가 함께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자 25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입점리고분전시관(063-859-4896)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 개최

남원시, 4~5일 다채로운 공연·체험 행사·이벤트 등 진행

남원시는 오는 4월 4일과 5일, 요천 둔치 월궁광장에서 ‘2026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음악회는 형식적인 개막식을 생략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해 방문객의 만족도와 현장 체험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사 기간 월궁 광장에서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매직 버블·별뿔쇼’를 비롯해, 시민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행운의 96 노래방’이 운영된다.

특히 노래방 이벤트는 제96회 춘향제의 사전 홍보와 연계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남원의 대표 문화 자산인 ‘신관사포 부임행차’ 무용 공연과 함께 요천의 봄밤을 수놓을 고품격 무대도 이어진다.

4일(토)에는 감성적인 발라드 공연이, 5일(일)에는 남원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무대가 마련되어 봄의 정취를 더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막걸리 축제’와 병행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요천의 수려한 봄꽃을 배경으로 막걸리와 다양한 먹거리를 민끽할 수 있고 △한궁 체험



△영수증 이벤트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한편 남원시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행사장 내 위생 및 환경 정비 등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8)

돼지 도망간다!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개간해놓은 땅에 남준이 옥수수를 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집에 살면서 예배당에 나가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다.

달이 낮았으므로 집안이 보였는데 서양수녀가 얼굴이 별게져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서 있었다.

할머니는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중증 환자였다. 남준은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다.

“아이고, 잘 왔어! 장독대 가서 된장 좀 퍼다 줘. 된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다른 장독을 건드려서 장독만 깨버렸대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못마땅한 듯 서양수녀를 흘려보냈다.

“미, 미안…… 합니다. 미, 미안…… 합니다.”

수녀는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남준은 할머니의 부탁대로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다 주고 집을 나왔다.

수녀는 엉거주춤 서 있다가 할머니의 집에서 나갔는데 눈물을 흘리는 건지 손으로 눈가를 닦아내며 걸어갔다. 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일까. 남준은 의문이 들었다.

며칠 뒤 남준은 돼지막을 손보고 있었다. 굵기가 얇은 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밑 부분이 떨어져서 달랑거렸다.

나무 기둥으로 임시로 문을 막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몸집이 있는 새끼 돼지 한 마리가 기둥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준은 고치던 문을 얼른 닫아놓고 돼지를 잡으러 쫓아갔다.

“돼지 도망간다!”

남준은 소리치며 돼지를 쫓아갔다. 다리가 불편한 남준은 금방 잡을 것 같던 돼지를 쫓다가 멈춰서고 말았다. 돼지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저 앞에서 서양수녀가 걸어오다가 남준이 돼지를 쫓는 광경을 봤다. 돼지가 수녀 쪽으로 달리다가 그녀 앞에서 방향을 틀었다.

수녀는 곧장 돼지에게로 달려갔다. 남준도 뒤를 따랐다. 수녀는 당차게 달려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돼지를 다이빙하듯 달려들어 두팔로 안아버리듯 움켜잡았다.

돼지는 꺾꺾 소리를 지르며 수녀 팔에서 빠져나가려 했고 그녀는 품에 안 듯 돼지를 꼭 더 안았다. 그녀의 웃은 당차게 돼지의 분노와 이리저리 지지분한 물로 더럽혀졌

다. 남준은 얼른 가서 수녀에게서 돼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돼지를 낚아채 남준에게 미소를 보냈지만 남준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얼마 뒤, 개간한 땅에 조성한 담배 밭에서 남준이 거름을 주고 있는데, 뽕뽕에 고무신을 신은 서양수녀가 커다란 바람을 짊어지고 고침을 쪽 신작로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심부름을 다녀오는 건가 싶었다. 저 무거운 바람을 짊어지고 고침을까지 걸어들어오는 건가.

얼마 뒤, 담배 밭을 수확할 시기가 되었다. 손길이 많이 가는 담배 농사는 나병환자들에게 힘든 작업이다.

파초 잎 크기로 자란 담배 잎을 일일이 판 뒤에 썬기 전에 한 잎 한 잎 새끼줄로 묶어서 건조해야 하는데 그 작업은 정성인도 버거운 일이다.

힘든 품을 이르고 남준은 담배 잎을 따고 있었다. 길을 가던 서양수녀가 밭으로 올라왔다.

“같이…… 해요.”

수녀는 밭으로 당차게 올라와 남준이 하는 대로 담배 잎을 찢다. 남준은 하지 말라는 말을 못했다.

그녀가 여러모로 달리 보였는데 한편으로는 경외심마저 들어 그녀에게 쉽게 말을 붙일 수 없었다. 하지만 물어보고 싶었다. 왜, 먼 나라에서 와서 그것도 나병환자촌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냐고.

주민들은 그녀가 곧 떠날 거라 예상했지만 봄여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그녀는 동해원에서 떠나지 않았다.

겨울 어느날, 남준은 이웃 신동마을로 달걀을 가져다주고 돌아오려는데 눈보라가 치고 매서운 바람이 불었다.

신난해 하며 신작로로 나서는데 고침을 쪽에서 바람을 짊어진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 봤더니 서양수녀였다.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